

5월 19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5월 19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p>‘지표-실적 쌍끌이’ 뉴욕 급등..다우 2.8%↑</p>	<p>뉴욕 주식시장이 주택 및 금융시장의 안정화 조짐에 따른 낙관론에 힘입어 급등세로 마쳤음. 미국 2위 주택건설자재업체 로우스의 실적이 월가 전망을 넘어서면서 지난 주말 주춤했던 랠리 재개의 모멘텀을 제공했음. 오후 들어 미국 주택건설업체의 체감경기가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보호 신청 사태로 금융위기가 본격화됐던 지난해 9월 이후 8개월만에 최고 수준으로 개선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랠리의 폭을 더욱 키웠음. 골드만삭스가뱅크오브아메리카(BoA)에 대해 긍정적인 실적 전망을 근거로 매수 의견을 제시한 것도 호재로 작용하며 금융주 강세를 이끌었음.</p> <p>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8,504.08로 전일대비 235.44포인트(2.85%) 상승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732.36으로 52.22포인트(3.11%) 올랐음. 대형주 중심의 S&P500 지수는 909.71로 26.83포인트(3.04%) 전진했음.</p>
<p>美 주택건설업 체감경기 ‘리먼사태 이후 최고’</p>	<p>미국 주택건설업체의 체감경기는 8개월만에 최고 수준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따라 지난 2006년 이후 3년째 지속돼온 주택시장의 침체가 끝나간다는 전망에 더욱 무게가 실렸음. 전미주택건설업협회(NAHB)는 5월 주택건설업체 체감경기지수가 전월의 14에서 16으로 상승했다고 밝혔고 이는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보호 신청 사태로 금융위기가 본격화됐던 지난해 9월 이후 8개월만에 최고치.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월가 전망치에도 부합하는 수준임.</p>
<p>유가 5% 급등</p>	<p>국제 유가는 나이지리아의 정정 불안에 따른 공급 차질 우려와 증시 랠리로 5% 가까이 급등했음.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6월물 인도분 가격은 전일대비 배럴당 2.69달러(4.8%) 오른 59.03달러를 기록했다.</p>
<p>자영업자 수 3년째 줄어..감소폭 최대</p>	<p>19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자영업자(자영업주) 수는 576만 5,000명으로 작년 4월과 비교해 26만 9,000명, 4.5%나 감소. 자영업자 수는 지난 2006년 5월 이후 35개월째 내리막을 걷고 있으며 이번 감소폭이 그중에서도 가장 컸음.</p>

제목	주요 내용
불황에 조선·항공·자전거 제조업 상승	1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19일 발표한 '불황기 호황산업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이 3가지 업종은 경제성장이 1% 포인트 악화될 경우 생산이 2.66% 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음. 담배 제조업도 경제성장 1% 포인트 하락시 생산이 0.26% 포인트 늘어나는 호황산업으로 꼽혔음.
신한은행, 하이브리드채 7,000억 창구판매	신한은행 관계자는 "상반기에 5,000억원 정도의 하이브리드채 만기가 돌아오고 하반기에도 약 1조원이 돌아온다"며 "만기 상환 등을 위해 쓰일 것"이라고 말했음. 아울러 올 2분기엔 대기업 및 중견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대손충당금 부담과 기업들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면서 추가 부담이 생길 것으로 예상, 선제적인 자본확충 차원이라고 은행측은 설명.
오픈하이머 "中 경제성장률 8% 달성 못해"	오픈하이머의 중국 주식 담당 수석연구원 케서린 루는 중국 경제가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수출이 기대에 못 미쳐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 중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은 6.1%에 그쳐 근 10년래 최저 수준으로 둔화됐고 4월 수출은 전년 대비 22.6% 감소를 기록. 앞서 JP모간은 17일 중국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확대'(overweight)에서 '중립'(neutral)로 하향 조정.
오릭스, STX엔파코 엑시트 '초읽기'	STX엔파코(29,450원 450 -1.5%)가 상장 성공함에 따라 일본계 투자회사 오릭스(ORIX)의 투자금 회수(엑시트)가 초읽기에 들어감. 보유 지분을 전량 매각할 경우 수익률은 약 300%에 이를 전망. 오릭스 관계자는 18일 "처음부터 전략적투자자(SI)가 아닌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한 오릭스로서는 이번 STX엔파코의 상장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며 "다만 보유지분 전량이 아닌 일부에 한해서만 투자금을 회수할 계획"이라고 발표.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